길림신문
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吉林朝鲜文报综合新闻
2025 년 4 월
12
토요일
음력 3 월 15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鲜文报 제 6021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중앙주변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습근평 중요 연설 발표 리강 회의 주재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회의 출석

■ 광활한 국토와 긴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주변은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점이고 외교 전반 국면의 방책을 짜는 선차적 요소,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관건이다. 반드시 글로벌 안목에서 주변을 주시하고 주변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해야 한다.

■ 18 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하에 우리는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주변외교 리념을 제출하고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을 창도했다. 그리고 수반외교의 인도하에 주변 국가와 함께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고 제반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면서 실무적이고 높은 효률을 갖춘 주변사업 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변사업에서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했다. 실천 과정에서 모색하고 형성한 경험을 반드시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중앙주변사업회의가 4 월 8 일부터 9 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그리고 국가 부주석인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에서 새시대이래 우리 나라 주변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금후 한 시기 주변사업의 목표와 임무, 구상과 조치를 명확히 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주변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착안해 주변사업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주변사업의 제반 임무를 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광활한 국토와 긴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주변은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점이고 외교 전반 국면의 방책을 짜는 선차적 요소,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관건이다. 반드시 글로벌 안목에서 주변을 주시하고 주변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8 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하에 우리는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주변외교 리념을 제출하고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을 창도했다. 그리고 수반외교의 인도하에 주변 국가와 함께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고 제 령역의 교류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면서 실무적이고 높은 효률을 갖춘 주변사업 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변사업에서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했다. 실천 과정에서 모색하고 형성한 경험을 반드시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와 주변 국가 관계는 근대이래 가장 좋은 시기에 처해있다. 한편 주변구도와 세계변국이 깊이 련동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 반드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국내외 정세, 그리고 발전과 안전이라는 대사를 총괄해야 한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평화와 안녕, 번영, 아름다움, 친선의 '5 대 터전'을 건설하는 것을 공동 념원으로 주변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안정을 유지하며 주변국을 부유하게 하고 친밀, 성실, 혜택, 포용, 운명을 함께하는 것을 리념과 방침으로 해야 한다. 또한 평화와 협력, 개방과 포용의 아시아주 가치관을 기본 준칙으로,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무대로 해야 한다. 안위(安危)를 함께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대화와 협상을 도모하는 아시아 안전 모식을 전략적 버팀목으로 해 주변국과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개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변 운명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다지고 지역, 국가가 자체 발전의 길을 안정하게 걷도록 지지하며 모순과 분쟁을 타당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융합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련통망을 구축하며 산업과 공급 사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안정을 공동 수호하고 안전과 집법 사업을 전개하며 각종 위험부담에 대응해야 한다. 왕래와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왕래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변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와 각측의 조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경외 관련 법률과 법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능력과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주변사업의 리론과 실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왕의가 총화 연설을 했다.

당과 국가 관련 지도자, 관련 부문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 신화사

황강 장춘에서 의무식수활동 참가 시 강조

매 한그루의 새싹과 매 한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보호하여 생태문명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게 해야

호옥정 주국현 참가

▲ 4 월 9 일, 성당위 서기 황강,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 성정협 주석 주국현 등 성 지도자들은 장춘시 민풍촌 홍기저수지 개조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간부, 군중들과 함께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했다.

4 월의 따뜻한 바람이 푸른 버드나무가지를 스치고 봄이 대지에 찾아오면서 만물이 새롭다. 4 월 9 일 오전, 성당위 서기 황강,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 성정협 주석 주국현 등 성 지도자들은 장춘시 민풍촌 홍기저수지 개조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간부, 군중들과 함께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수도 의무식수활동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에누리없이 락착하며 광범한 간부와 대중을 동원하여 조림록화에 적극 참여하고 매 한그루의 새싹과 매 한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보호하여 생태문명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식수 지점은 한창 계획건설중에 있는 중국항공박물관과 린접해있었는데 앞으로 이곳에는 록지공원이 건설되여 홍기저수지와 하나로 융합되면서 장춘시의 또 하나의 자연생태고지로 될 것이다. 황강, 호옥정, 주국현 등 성 지도자들은 주변 건설 계획과 중점 프로젝트의 진전을 상세히 료해했다. 황강은 중국항공박물관 건설을 둘러싸고 각종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문화관광을 더욱 잘 발전시키며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촉진할 것을 장춘시에 요구했다.

이어서 황강, 호옥정, 주국현 등 성 지도자들은 간부, 군중들과 함께 삽으로 땅을 고르고 비료와 물을 주면서 련이어 장자송, 홍송, 단풍나무, 라이라크 등 여러가지 묘목들을 심었다. 황강은 나무를 심으면서 림업초원부문 간부들에게 록화 미화 업무 상황을 물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곳은 생태 기초가 좋은바 록화단장을 거쳐 앞으로 반드시 성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왕홍 핫플레이스로 될 것이다. 성, 시 관련 부문은 길림 특색의 수종을 알심들여 심어 잘 가꾸는 것으로 이곳을 사계절 부동한 풍경이 있고 계절마다 모두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황강은 또 식수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과 친절하게 교류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중요한 시간 절점에서 군대와 지방이 합작하여 공군항공개방활동과 장춘항공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인민공군의 필승의 능력과 저력을 전면적으로 과시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민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쌍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합력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항공전시회를 특색과 수준 있게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식수로동을 거쳐 간부와 군중들은 도합 500 여 그루의 각종 묘목을 심어 록지공원에 아름다운 풍경선을 더해주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전민의무식수운동을 전개한 지 43 년간 전 성에서 연인수로 3 억 6,800 만명이 각종 형식으로 의무식수에 참가하고 각종 나무 16 억 2,700 만그루를 심었으며 록미길림 건설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여 전사회가 록색을 사랑하고 록색을 보호하는 문명기풍을 형성했다.

장춘 주재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들과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성군구, 공군항공대학, 무장경찰부대와 장춘시 관련 방면의 책임자 등이 활동에 참가하였다.

/ 길림일보

'조선족장고춤' 제 3 회 중국 – 아세안 무형문화유산주간에 등장

최근 제 3 회 중국 – 아세안 무형문화유산주간이 광서쫭족자치구 남녕시에서 성대하게 열린 가운데 도문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항목인 '조선족장고춤'이 훌륭한 공연으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칠색 복장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사위와 격앙된 북장단으로 조선족장고춤의 특유의 매력을 생동하게 구현하면서 중외 문화교류 활동 가운데서 독특한 '문화명함장'으로 떠올랐다.

이번 활동은 '산과 물이 잇닿고 서로의 문명 학습 교류'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 성세공유'를 둘러싸고 타이, 웰남, 캄보쟈,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7 개 아세안 국가 및 신강, 사천, 중경, 길림, 강소, 절강, 복건, 운남, 광동, 광서 등 10 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의 54 가지 무형문화유산을 선보였다. 그중에서 도문시 조선족장고춤은 길림성의 유일한 출품 항목으로 아세안 여러 국가 민족과 국내 여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한데 어우러져 함께 상호 문명을 준용하는 아름다운 장을 엮었다.

이번 공연은 조선족장고춤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아세안 각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중요한 플래트홈을 구축했다.

다음 단계에 도문시는 이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 무용이 새시대에 더욱 화려하게 빛나게 할 예정이다.

/ 인민넷

5 월 10 일부터 혼인신고 수속 간소화, 더 이상 호구부 필요없어

개정된 〈혼인신고조례〉가 최근 발표되여 2025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및 가정 써비스 업무 내용을 추가한다. 둘째, 혼인신고의 '전국 통합 처리'를 시행한다. 셋째, 혼인신고 써비스를 최적화한다.

〈조례〉에 따르면 결혼이나 리혼신고를 할 때 더 이상 호구부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려는 내지 주민은 다음의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본인의 주민신분증

▶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 대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성명서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

▶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

▶ 남녀 쌍방이 완전 자원적이지 않을 경우

▶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직계혈족 또는 3 대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할 경우

〈조례〉에 따르면 내지 주민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신고를 해야 한다. 리혼신고를 하려는 내지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 인민넷

일전 장춘시 54 번 문화관광 전문전차인 '봄날 한정 복고 복숭아꽃 전차'(春日限定复古桃花电车) 가 정식으로 발차했다. 봄빛 가득, 랑만 가득 담긴 이 궤도전차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승차 체험을 안겨주며 장춘시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였다.

/ 길림일보